

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

2016. 4. 1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2.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6.2.26.

다. 상정일자 :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6.3.3.)

상정, 심사, 보류

제20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6.4.1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류보현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·설치 대상인 ‘舊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계획’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사업의 목적 및 용도

장애인 복지욕구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협소한 現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舊 청사내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확장 이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2. 사업의 필요성

-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탈시설화, 지역사회서비스 욕구 증가, 자립생활 이념 확산 등으로 변화하고 있어 문화, 예술, 생활체육 등 다양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함.
- 現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우 협소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(휠체어 사용, 시각장애인 이동 등)이 어려운 상태임.
- 또한 現 마포장애인복지관은 좁은 공간 및 대피시설 부재로 인해 화재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건물 확충을 통해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복지관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.
- 舊 보건소 건물은 1979년 9월 건립된 건물로 노후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승강기, 화장실, 외벽 등 리모델링이 필요함.
- 아울러, 現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,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필요성 있음.

3.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계획

- 사업명 : 舊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
- 사업기간 : 2015. 9월 ~ 2018. 3월
- 위치 : 마포구 성산로 128(성산동) 舊 청사내 보건소 건물
- 건물규모 : 지상4층, 연면적 2,111.88㎡ (1979.9.3 준공)

층별	연면적(㎡)	배치(안)	비고
계	2,111.88		
1층	527.97	로비, 주간보호시설, 사무실	
2층	527.97	치료실(9개), 관장실, 사무실	
3층	527.97	프로그램실(5개), 소강당, 사무실, 요리교실	
4층	527.97	직업재활시설, 회의실, 식당	
옥탑	44.4	체력단련실(증축 가능시)	

* 舊 보건소 건물 활용시 연면적 727㎡ 증가(1,384㎡→2,111㎡)

- 총 공사비 : 3,895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총공사비	설계용역비	공사비	감리비	시설부대비	비고
3,895	95	3,344	419	37	

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○ 현(現)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2. 6. 15일 준공된 지하1층, 지상7층, 연면적 1,409.5㎡ 건물로 민간위탁(사회심리재활외 5개 프로그램과 기타 특화사업 등)방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으나, 장애인 휠체어 및 시각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공간이 협소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대피시설 부족 등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보강공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음

< 그 간 보강공사 내역 >

- 2012년 : 정보화개선사업 => 5백만원(시비 250만원, 구비 250만원)
- 2013년 : 외벽개보수 => 5,269만원(시비 2,634만 5천원, 구비 2,634만 5천원)
- 2015년 : 체력단련실 환경개선, 프로그램실 난방개선 및 정보화기능개선
=> 3,061만원(시비 1,530만 5천원, 구비 1,530만 5천원)
- 2016년 : 엘리베이터 유리교체 및 차량교체 => 3,293만원(시비 1,646만
5천원, 구비 1,646만 5천원)

○ 2016년 2월 현재 마포구 등록장애인은 13,806명(구 전체인구의 3.63%)이며,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8개 중 연면적 기준 마포구는 24번째(1,409.53㎡)로 서울시 평균 면적(평균 면적 : 2,935㎡) 이하로 좁은 공간에 많은 프로그램을 수용하다 보니 장애인의 활동반경을 적게 하여 장애인 프로그램을 구성·운영할 수밖에 없어, 안전하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, 그 간 관련부서에서는 마포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, 현(現)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에는 노후화된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이용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수화통역센터 등으로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, 구(舊)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려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계획(안)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

○ 검토의견으로는 현(現)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특히 장애인 휠체어 사용 시 회전 반경이 적고, 시각 장애인 이동 거리를 고려한 충분한 공간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어렵고, 특히 장애인 특성 상 일반인과는 다른 화재 피난 대피유도 시설 등이 필요하나 공간부족 등으로 인한 일부 보강공사만으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고 재난 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, 최근 장애인복지 요구 수요(문

화, 예술, 생활체육 등)의 증가로 이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간은 부족하여 현(現)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(1,384㎡)은 장애인복지회관 등으로 일부 전용하여 활용하고, 부족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해 구(舊)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'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계획(안)'은 적절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됨

○ 다만, 사업추진 일정과 관련하여

1) 구(舊) 보건소 건물에는 강북청년창업센터로 임대 중에 있었고 임대기간이 2015.12.31일 만료되었으나, 일부 시설물 등 퇴거를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전에 퇴거조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

- 舊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 확정이전은 리모델링으로 하되, 향후 증축을 감안하여 기둥, 보 등에 대한 보강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기 바람

8. 기타 : 없음